



Economy

코스피	2287.68 (0.00)	코스닥	788.81 (0.00)
금리 (미국 3년)	2.11 (-0.01)	환율 (원/달러)	1127.60 (+1.50) (3일)



[산업]
LG전자
가성비·프리미엄 앞세운
신형 폰 잇따라 선풍
04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된 날, 서울 핫플레이스엔 ‘한숨만 가득’

“인건비 이어 전기료는 또 얼마나”...1km 상권 폐업 12곳

흔들리는 자영업 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① 이태원 경리단길

“여기는 평일 오후나 주말 장사로 사는 편이라, 그때 손님을 못 받으면 끝난 거죠. 임대료 싸다고 해서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태원 경리단길은 10여년 전부터 이태원의 비싼 임대료를 피해 자리 잡은 개성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재 경리단길은 핵심 자리의 권리금이 2분의 1수준으로 반 토막 날 만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끝자락에서 만난 중개업자 김 모씨(50)씨는 “임대료 임금 등은 오르는데 장사 매출은 줄어 들어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김모씨가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전세물은 총 8건. 상권 보증금은 1000만~8000만원, 월 임대료는 150만~550만원 수준



경리단길 입구와 경리단길에 있는 상가 1층 우측매장이 폐업상태에 있다.



/나누리 기자

임대료 오르는데 매출은 똑 영업시간 줄이고 알바 감축 브레이크 타임도 손님 받아 생존절벽에 폐업 고민 커져

이다.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쌀 편이지만 모두 2주 이상 계약관련 연락이 없는 상태.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경리단길 점포 임차인들도 속앓이 중이다. 길 보기엔 인기상권을 누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구경만 하다가는 사람도 많아 매출이 적은 곳이 상당히 많다.

경리단길에서 비교적 인기가 높은 점포 5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볶음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40)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줄었다”며 “며칠 전 평일주말 상관 없이 쓰던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주말에만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던 영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로 늘렸다. 그는 “영업시간을 늘려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가끔 손님이 몰려오는 경우는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도 버치지만 평일에 한 명 이상 두면 적자가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10m가량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B초밥집은 최근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단축했다. 초밥집 주인 최모씨(40)는 “이미 흡서빙과 주방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최소로 운영되고 있어

더 줄일 수가 없다”면서 “예전에는 브레이크 타임(3시30분~4시30분)은 꼭 지켰는데, 이젠 그사이에 손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주말이라 실세없이 바빠야 할 B초밥집은 브레이크타임을 포함한 한 시간 동안 3테이블을 받았다.

생존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경리단길뿐만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소상공인매출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매업·숙박업·학원 등 7개 업종의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출은 3372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의 월평균 3846만원과 비교했을 때 12.3% 급감한 수치다. 만성화된 내수부진과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해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100개 중 4개가 문을 닫고 2개가 새로 창업한 것. 지난

4일 오후 6시, 주말 저녁장사를 위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시간. 이태원 녹사평역방향 경리단길 입구서 경리단길의 중간지점(주한외지대사관 부근), 약 1km 이내에 휴가 등 별도의 안내문 없이 문 닫은 업체는 12곳이었다.

폐업 고민을 하고 있다는 C커피피습주인 오모씨(35)씨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해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며 “매출은 줄었는데 매달 나가는 건 늘고 있어 가게 매출이 좋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 비용은 매년 크게 늘자 자영업자 상황은 매년 추락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자영업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자영업자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불경기 대란이 벌어지면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텅빈 도심과 차량으로 가득한 고속도로



(왼쪽부터)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5일 서울시청 인근 도심이 차량이 붐비지 않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C 구간 하행선에서는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전망

文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나선다

오는 16일 첫 공개토론회

올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세부담률의 상승 속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제규모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세에 더해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 운용 기조에 비춰 보면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문제는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풀지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세 부담을 늘리기에 앞서 더 많은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소득 주도성장 정책,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도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

〈연도별 조세부담률 현황·전망치〉

	경상 GDP (A)	세수총계 (B=C+D)	국세 (C)	지방세 (D)	조세부담률 (B/A)
2013	1,429.4	255.7	201.9	53.8	17.89
2014	1,486.1	267.2	205.5	61.7	17.98
2015	1,564.1	288.9	217.9	71.0	18.47
2016	1,637.4	318.1	242.6	75.5	19.43
2017(e)	1,730.4	345.8	265.4	80.4	19.97
2018(e)	1,799.6	365.0	287.1	77.9	20.25

※ 자료 출처 :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 등 자료를 가공한 것

* 2017년 경상 GDP는 잠정 실적 * 올 경상 GDP는 2017년 잠정 실적치에 정부 전망 성장률을 곱해 산출

* 올해 국세 전망은 추경 기준 올해 세수 전망에 추가 세수 전망 19조원을 더해 산출

* 올해 지방세 전망은 행정안전부 예산안 기준

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안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

치 77조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면에 계속〉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車보험료, 10월 중 최소 3~4% 인상

당국·보험업계 조율중 정비요금 상승 등 영향

자동차보험료가 올 10월 중 최소 3~4% 오를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을 고려 중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6년 말 이후 약 2년 만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고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었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다. 금융당국도 인상 요인이 있다

는 점을 인정하고,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를 기록했다.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돌았다. 2분기 말 손해율 역시 80%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직접적인 인상 요인은 정비요금의 상승이다. 정비요금은 약 20%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연간 보험금 지급이 3000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약 600개 정비업체의 등급 검증을 이번 주 중 마친다. 이를 토대로 손보사들이 8000개 정비업체와 개별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

손보험회 관계자는 “등급 검증을 마치면 8월 중 웬만한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며 “정비요금 인상을 보험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